



## 2017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개최

정부 및 산업계 · 학계 · 연구계 등 원자력계 주요 인사 2백여명 참석



주요 귀빈 기념 사진. (사진 왼쪽부터) 박재영 산업통산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이재희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이관섭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 민병주 전 국회의원, 이승구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이종재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덕지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한영성 전 과학기술처 차관

한국원자력산업회의(회장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는 1월 20일(금) 7시 30분 웨라튼서울팔래스강남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 원자력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정부 및 산·학·연의 주요 관계자, 원자력계 원로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참석 인사 간 신년 하례와 함께 이관섭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의 신년사로 이어졌으며,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의 건배사, 신년 축하 떡 나눔식, 그리고 조찬과 함께 황주호 원자력학회 회장, 김종경 원자력연구원 원장의 덕담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관섭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6년도의 원자력산업계 성과를 돌아본 뒤 “원전산업의 앞날은 우리가 얼마나 국민에게 믿음을 주느냐, 안전하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과 원칙 준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원자력계 모두의 정책적 공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리천리(毫釐千里)”란 고사성어를 들어 “안전에 대한 자세를 조금만 바꾼다면 우리 모두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원전의 철저한



신년사를 하고 있는 이관섭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왼쪽부터)



축하 나눔떡 커팅 행사



신년인사회 전경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홍남기 차관은 “원자력계의 많은 성과는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은 우리가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겠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정부는 원자력 기술이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는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뒤 “대한민국 원자력이 세계 최고의 안전한 원자력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새로운 의지와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난 대응, 현장 중심, 미래 대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특히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 유지와 공개를 원칙으로 대국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며,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